# 광주·전남 기초단체장 당선·유력자 〈1일 새벽 1시 현재〉

〈범 례〉
▲이름
▲나이·정당
▲주요 경력 순
▲정당 약칭:우=열린우리당, 민=민주당, 무= 무소속

## 광 주

### 동구청장
유태명
62·민
동구청장
당 선

### 서구청장
전주언
58·민
정당인
유 력

### 남구청장
황일봉
48·민
남구청장
당 선

### 북구청장
송광운
52·민
정당인
유 력

### 광산구청장
전갑길
48·민
정당인
유 력

## 전 남

### 목포시장
정종득
65·민
목포시장
당 선

### 여수시장
경 합

### 순천시장
노관규
45·민
변호사
유 력

### 나주시장
신정훈
41·무
나주시장
당 선

### 광양시장
이성웅
64·민
광양시장
당 선

### 담양군수
경 합

### 장성군수
유두석
56·무
무직
유 력

### 곡성군수
경 합

### 구례군수
서기동
56·우
정당인
당 선

### 고흥군수
경 합

### 보성군수
정종해
59·민
정당인
유 력

### 화순군수
전형준
50·민
다산건설대표
당 선

### 장흥군수
김인규
52·무
장흥군수
유 력

### 강진군수
황주홍
54·민
강진군수
당 선

### 완도군수
김종식
55·우
완도군수
유 력

### 해남군수
박희현
61·민
해남군수
유 력

### 진도군수
박연수
57·우
정치인
유 력

### 영암군수
김일태
61·우
정당인
유 력

### 무안군수
경 합

### 영광군수
경 합

### 함평군수
이석형
47·무
함평군수
당 선

### 신안군수
고길호
61·무
신안군수
유 력

## ‘1인 6표제’ 혼란…무효표 속출

지난달 31일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복잡한 투표방식때문에 기표를 제대로 하지 못해 무효표가 속출했다.

유권자들을 가장 혼란스럽게 한 것은 유권자 1명이 한 번에 3장씩 두 차례에 걸쳐 모두 6장의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1인6표제’. 이번 선거에서 1인 6표제가 처음 실시되면서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투표방식이 복잡하고 후보자들을 잘 분간하지 못하겠다는 하소연이 쏟아졌다

특히 후보 수가 많은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 특정 정당의 후보 2명에게 모두 투표하는 등 복수로 기표된 용지가 많았다. 이날 광주 서구 염주종합체육관 개표장에서는 광역·기초 단체장, 광역·기초 의원, 비례대표 선거 투표 등 종류에 관계없이 기표되지 않은 용지들이 잇따라 나왔다.

광주 북구 KT&G 개표장에서는 1개 투표함에서 나온 1천576장 가운데 6.

### 한장에 3번 찍어 인식 못해

### 한 개표장선 6.5% ‘미분류’

5%인 101장이 투표지 분류기가 인식하지 못하는‘미분류’용지로 나타나기도 했다. 미분류 용지는 한 장에 3번을 찍거나 아예 찍지 않은 용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개표사무원 최모(46)씨는“3장씩 2차례에 나눠 기표를 하면서 투표용지 3장을 받은 뒤 1장에 3번 기표하고 나머지 2장은 하지 않은 채 투표함에 용지를 넣은 유권자들이 많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개표과정에서도 6가지 투표용지를 분류면서 혼선이 빚어져 광주 서구 서창동 1투표소 구청장 선거 투표용지에 구의원 비례대표 선거 투표용지가 1장 섞여 6가지 투표용지를 모두 재분류했다.

더욱이 나이가 많은 유권자들은 투표 방법을 되묻는 해프닝을 빚었다. 특정 정당에서 두 명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용지에는 이름이 하나도 없기도 했다.

광주시 북구 오치2동 제2투표소에서는 고령의 유권자가 기초단체장과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투표를 한 뒤 투표함에 투표용지 1장만 넣으려다 참관인의 안내를 받았다.

또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지역구별로 2~4명의 기초의원을 뽑는 중선거구제 도입에 따라 유권자들의 어려움도 적지 않았다. 복수의 기초의원을 뽑는다는 요령을 한 투표용지에서 복수의 후보를 선택하라는 뜻으로 이해한 것.

광주 서구 상무1동 유촌초등학교에 마련된 제5투표소를 방문한 40대 중반의 여성 유권자는“1장에 1번만 기표해야 한다는 사실을 깜박하고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기초의원 후보 모두에게 기표했더니 무효표가 돼 버렸다”고 안타까워했다.

/박치경기자 unipark@

■ 지방의원 의정비 어느 정도 될까

## 광주·전남, 서울의 60% 수준

지방의원들이 받는 의정비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의정비 수준도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자립도가 낮은 광주·전남지역 의정비는 타 자치단체에 크게 못미친다. 의정비도 ‘빈익빈 부익부’인 셈이다.

광주·전남지역 광역의원 의정비는 전국 평균 이하일 뿐 아니라 서울 지역의 6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의원의 경우 광주는 전국 평균 수준이지만 전남은 평균치의 85%에 정도에 머물렀다.

지난달 31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전국 지방의원 의정비에 따르면 광역의원의 평균은 4천463만원이며, 기초의원은 2천765만원으로 집계됐다.

16개 광역자치단체중 의정비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6천804만원)이었으며 광주는 12위(4천231만원), 전남은 최하위(3천960만원)로 재정자립도가 의정비의 최우선 기준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광주 시의원 의정비는 서울과 부산 등 전국 7개 대도시 가운데 가장 적은 액수로 책정됐으며, 16개 광역 의회 가운데서는 12위를 차지했다.

광주 시의원 의정비는 서울시의원의 62% 수준이었다. 또한 광주 구의원 의정비는 평균 2천791만원으로 시의원(4천231만원)의 66%에 달했으며, 재정상태가 열악한 전남지역 기초의원 보다는 25% 정도 많았다.

전남지역 광역의원 의정비는 3천960만원으로 광역지자체중 가장 적을 뿐만 아니라 서울의 58% 수준에 머물렀다.

전남 기초의회중 최고액은 광양시로 2천883만원이며 최저액은 강진군으로 2천220만원으로 무려 660만원이나 차이가 났다. 특히 광양시는 광주 지역 5개 기초자치단체 보다 높은 액수를 보였다.

이같이 확정된 의정비는 올해 1월1일부터 소급해 지급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지방의원 의정비

| 자치단체 | 의정비(만원) | 증감율(%) |
|---|---|---|
| 광주시(시의원) | 4,213 | 35 |
| 전남도(도의원) | 3,960 | 27 |
| 광양 | 2,883 | 36 |
| 광주 북구 | 2,821 | 33 |
| 광주 광산 | 2,800 | 32 |
| 광주 서구 | 2,790 | 32 |
| 광주 동구 | 2,778 | 31 |
| 광주 남구 | 2,766 | 30 |
| 여수 | 2,741 | 29 |
| 목포 | 2,580 | 22 |
| 나주 | 2,568 | 21 |
| 무안 | 2,550 | 20 |
| 신안 | 2,536 | 20 |
| 영광 | 2,520 | 19 |
| 해남 | 2,520 | 19 |
| 화순 | 2,520 | 19 |
| 영암 | 2,484 | 17 |
| 완도 | 2,480 | 17 |
| 보성 | 2,460 | 16 |
| 곡성 | 2,422 | 14 |
| 담양 | 2,400 | 13 |
| 장성 | 2,400 | 13 |
| 장흥 | 2,400 | 13 |
| 고흥 | 2,370 | 12 |
| 진도 | 2,335 | 10 |
| 구례 | 2,316 | 9 |
| 함평 | 2,311 | 9 |
| 순천 | 2,226 | 5 |
| 강진 | 2,220 | 5 |